

2008. 1. 7 제18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1. 7 제182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북경市 다산즈(大山子) 예술특구: 시민에게 좀더 다가온 예술

[해외출장 리포트]

관광 안내책자의 글로벌화

도시경영·경제

1. 장애인, 관광은 '장애' 없이 (런던)
2. 주민·기업·NPO가 함께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 창립 (도쿄都 치요다區)
3. 6개 첨단기술이 미래를 책임진다 (영국)
4. 지역문제를 주민의 아이디어로 해결 (도쿄都 아다치區)
5. 거버넌스는 이렇게... '협치(協治) 가이드북' 제작 (도쿄都 스미다區)
6. 정보타워에서 방문객이 공사 진행상황 관찰 (베를린)

디지털도시

7. 클릭 한 번이면 약국 정보가 '우르르' (도쿄)

목 차

복지·문화

8.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야외 공공장소 확대 (파리)
9.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학’ 팸플릿을 보세요 (베를린)
10. ‘인권도시’ 선언 (도쿄)
11. 집 없는 이주 노동자 임시숙소 보수비용 지원 (파리)

도시환경

12. 2008년부터 유해물질 배출차량은 ‘환경구역’ 출입 금지 (베를린)
13. 야간 소음과의 전쟁 개시...‘조용한 도시’ 정책 시행 (브라질 상파울루市)
14. 주말은 도시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런던)
15. 약 3800억 원 들여 동부지역 생태망 구축 (런던)
16. 도시가 CO₂ 75% 배출...‘C40 회의’에서 기후변화 방지방안 모색 (런던)
17. 지구온난화에 태양열 에너지로 맞서 (파리)
18.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만든다 (영국 사우스웨일스)

도시교통

19.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차로 수를 더 늘려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건설·주택

20. 지역사회 활성화방안을 市 도시계획에 반영 (런던)

방재·안전

21.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22. 우범지대를 표시한 ‘지역 안전 지도’ 제작 (도쿄)

[벤치마킹 사례]

북경市 다산즈(大山子) 예술특구: 시민에게 좀더 다가온 예술

<주요 내용>

- 북경市 ‘798 예술구’ 혹은 ‘다산즈(大山子) 예술특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부상한 지역임. 외국인에게는 뉴욕市的 ‘소호’(SOHO: South of Houston)¹⁾ 같은 장소로, 북경을 여행할 때 고궁과 만리장성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지목됨.
 - 다산즈 예술특구는 원래 ‘718 연합창’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여러 개의 국영 공장이 모여 있던 공장지대였음.
 - 계획경제 시대의 틀에 맞게 만들어진 공장은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쇠락함.
 - 2001년 중앙미술학원이 인근으로 옮겨온 후,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동이 중단된 공장 부지를 예술가들에게 임대하기 시작함.
 - 공장지대라 건물을 싼값에 임차할 수 있고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예술인의 관심이 증가함.



다산즈(大山子) 예술특구의 입구(왼쪽)와 약도(오른쪽)

1) 원래는 공장이나 창고가 많았는데 대공황 시기를 거치며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가난한 예술가들이 빈 건물로 모여들면서 예술도시가 됐음.

- 세계 각국의 갤러리 100여 개와 작업실 200여 개가 모여 있으며, 자국에 대형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다산즈에 지점 갤러리를 만듦.
·우리나라의 몇몇 갤러리도 다산즈에 지점 갤러리를 개설했음.
- 다산즈 예술특구는 2003년 ‘제1회 다산즈 페스티벌’을 계기로 유명해짐.
·전 세계 유명 갤러리 및 예술 관계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관광지로도 개발됨.



‘2007 다산즈 798 페스티벌’(왼쪽)과 공장 건물을 개조해 갤러리를 만든 ‘798 스페이스’(오른쪽)

- 이곳에는 현재 미술·출판·건축설계·의상·디자인·가구디자인 등 6개 분야의 문화기구 229개가 있으며, 작업실·술집·카페·음식점·서점·요가센터 등 각종 편의 및 위락시설도 입점해 있음.

<해설 및 평가>

- 시정부가 예술가에게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 산업이 발전하고 시민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곳이 해외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명소가 된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해외관광객 1200만 명 유치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인사동을 비롯해 대학로, 홍대, 신촌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했음.

-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현재 자생적 문화 입지가 줄어드는 반면, 유동인구를 놓치지 않으려는 상업적·유흥적 성격의 업소가 증가하고 있음.
- 인사동은 1998년 이후 고미술점·갤러리·필방·표구점 등 전통문화 업종의 감소로 순수한 의도를 가진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가가 자리할 곳이 줄어드는 상황임.
 - 고미술점은 1998년 172개소에서 2002년 72개소로 감소함. 반면, 같은 기간에 공예품점은 32개소에서 96개소로, 일반 음식점은 83개소에서 403개소로 급격히 증가함.
-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리인 대학로의 경우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는 발표에 지가와 임대료 등이 대폭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극장과 극단이 문을 닫거나 공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공존하는 예술공간이 아닌 향락과 소비의 상업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다산즈 예술특구가 성공한 요인은, 시정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슬럼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술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저가(低價) 임대료라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한 점임.
 - 도시재생에 있어 과연 어떤 분야가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생기와 경쟁력을 불러오거나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판단해야 함. 앞으로 미래 서울의 발전 원동력이 상상력과 감수성이라고 볼 때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산즈 예술특구의 또다른 성공 요인은 이 지역 민간 예술단체가 주최한 ‘다산즈 페스티벌’ 프로그램이었음.
 - 문화·예술 분야는 민간 전문단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실험할 수 있도록 재정 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시정부가 지원함. 이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지원자격, 신청, 감사 등의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함.
- 뉴욕市나 파리市 등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는 도시 안에 세계적인 예술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술특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는 등 아주 의미 있는 무형 재산이 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민이 좀더 쉽게 예술에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산즈 예술특구처럼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이 동북아지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금융 등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예술특구를 형성하면 예술 관련 인재 육성과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서울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향상하는 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잠재적 효과를 거둘 것임.
 - 새로운 예술특구의 형성으로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는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영주 동북아도시센터장(yjh@sdi.re.kr)

[해외출장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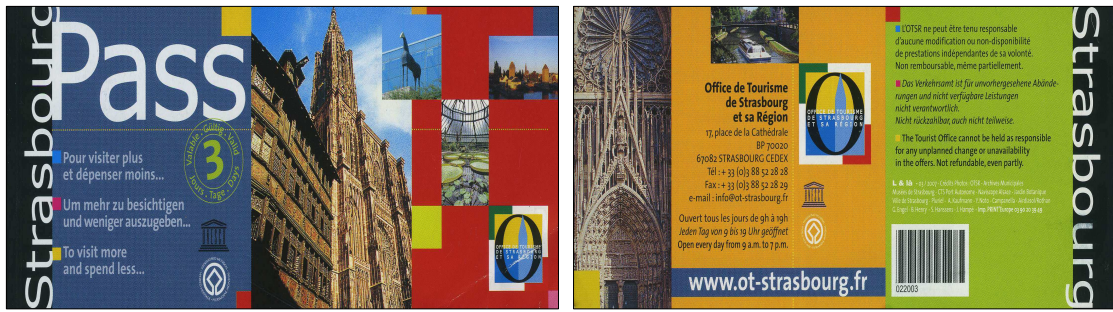
관광 안내책자의 글로벌화

<개요>

- 세계 각국의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 사례를 통해 글로벌 스트리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거리의 특성과 조성 과정 및 형성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의 기본방향과 틀을 확립하고자 2007년 9월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市를 방문함.

<주요내용>

- 스트라스부르市는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의 접경지역임. 주로 프랑스어와 독일어, 영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 안내책자에 3개 언어를 같은 비중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주고 관광안내 효과도 높이고 있음.
 - 스트라스부르 관광 안내센터에서는 관광지 안내문과 입장 할인권이 같이 붙어 있는 관광지 투어패스를 판매함.
 - 투어패스에 포함된 할인권을 이용해 스트라스부르의 주요 관광지를 할인 가격이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음.
 - 관광지 안내문의 경우 앞면에는 프랑스어, 뒷면에는 독일어와 영어로 기재해 지면 활용도를 높이고, 일목요연하게 관광정보를 제공함.
 - 박물관 및 유명 성당 관광, 체험 프로그램(보트 타기, 미니 트램·자전거 투어 등) 등 관광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함.
 - 휴대하기 쉽게 작은 크기로 제작함.



<그림 1> 앞면(왼쪽)은 프랑스어, 뒷면(오른쪽)은 독일어와 영어로 기재된 투어 패스



<그림 2> 앞면(왼쪽)은 프랑스어, 뒷면(오른쪽)은 독일어와 영어로 쓴 관광지 안내문



<그림 3> 관광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한 입장 할인권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현재 서울시의 관광 안내책자 및 지도는 각 언어별로 따로 제작돼 있음. 이를 개선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한 책자 및 지도에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이용과 휴대의 편의성을 높임.
-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같은 비중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적절한 크기로 제작함으로써 관광 후에도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함.

/반정화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jhpan@sdi.re.kr)

1. 장애인, 관광은 ‘장애’ 없이 (런던)

○ 런던관광공사(Visit London)는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정보 안내 웹사이트 (www.visitlondon.com/access)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런던개발청이 추진하는 ‘모두에게 열린 런던’(London Open to All)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 150여 개 호텔의 1000여 개 객실이나 극장 및 관광명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단도 안내함.

·런던 시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많이 보유한 호텔은 프 리미어 인, 트래블 룿지, 홀리데이 인 등임.

- 관광분야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 안내문 작성법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무료 강좌를 엮.

- 런던市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매년 150억 파운드(약 285조 원)에 달함.

·런던개발청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런던市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297)

(www.lda.gov.uk/tourismsupport)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는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런던시의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사례는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사업의 성격도 있음.
- 국내에서는 서울 시내 호텔과 음식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을 소개하는 책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 의해 발간된 바 있으나, 온라인 정보 제공은 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내 호텔·음식점·주요 관광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는 물론, 이러한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정보와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까지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함.
 - 서울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사이트가 별도로 있지만, 관광정보는 장애인 사이트뿐 아니라 서울시 일반 관광정보 제공 사이트에도 올려야 함.

/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khkim@sdi.re.kr)

2. 주민·기업·NPO가 함께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 창립 (도쿄都 치요다區)

- 도쿄都 치요다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키하바라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 지역 단체와 연대해 2007년 5월에 ‘아키하바라 타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를 설립함. 이 회사는 불법주차나 쓰레기·담배꽂초 투기를 단속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게 됨.
 - 치요다區는 구민·기업·대학·철도사업자·NPO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관리·운영 및 지역 경영의 틀 확립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

고자 지난 2년간 검토해 왔음.

- 치요다區가 3000만 엔(약 2억 4650만 원), 27개 민간회사가 3490만 엔(2억 8670만 원)을 출자해 총 6490만 엔(약 5억 33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함.
- 주주는 치요다區, 설립 준비회원 14명, 지역단체 4개, 개발회사 9개임.

- 주요 사업내용은 ‘아키하바라 지역 도시환경 보호 사업’, ‘아키하바라 지역의 특성과 자원 활용 사업’임.

- 청소·자원 절약·에코 심포지엄 등 미관 추진사업, 주차장 안내 시스템·지역 순찰 등 교통·치안유지 사업, 상업 교류시설 정비 등 시설·지구 정비사업, 관광정보센터 설치·첨단기술 개발 지원 등 관광촉진·산업창출 사업 등임.

(www.city.chiyoda.lg.jp/service/00092/d000924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 치요다區 아키하바라 지역의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민·기업·대학·철도사업자·NPO 등이 주체가 돼 설립한 아키하바라 타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체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 행정·시민·기업의 새로운 협력모델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실행체계를 설립한 형태임. 일본에서도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에서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6년 시도된 바 있으며, ‘녹색 주차 마을 사업’은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

·서울시는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마을 만들기와 연계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 차원에서 아키하바라 타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처럼 새로운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정훈 도시계획부 연구위원(jhmok@sdi.re.kr)

3. 6개 첨단기술이 미래를 책임진다 (영국)

- 영국정부의 과학자문그룹(Science Advisory Group)은 영국의 미래 번영을 기약할 6개 첨단기술 분야를 최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이산화탄소 집진·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이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하나로 강조됨.
 - 이밖에도 재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연재해 경감 기술, 인터넷과 연계한 건강향상 서비스 등이 소개됨.
 - 과학자문그룹 관계자는, 영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새로운 첨단기술을 자본화해야 한다고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69091/Six-tech-areas-key-UKs-future)

4. 지역문제를 주민의 아이디어로 해결 (도쿄都 아다치區)

- 도쿄都 아다치區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구민과 지역단체, 기업과 협력해 해결하는 ‘아다치區 제안형 협동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아다치區는 ‘누구나 살기 좋다고 느끼는 마을, 아다치’를 목표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NPO나 기업에서 제안받아 함께 실행함.
 - 이 사업을 통해 아다치區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 받고 있음.
 - 2007년에는 4개의 사업이 제안됐음. 현재 공익성이 높은 사업 2건이 채택돼 區와 협정을 맺고 실시할 예정임.

- 채택된 사업은 도시 열섬효과 대책인 ‘옥상 소규모 녹화에 유효한 시스템’, 유아가 갑자기 발병했을 때 100% 출동하는 유료서비스인 ‘어린이 레스큐넷’(Rescue Net)임.

(www.city.adachi.tokyo.jp/008/d02700051.html)

5. 거버넌스는 이렇게... ‘협치(協治) 가이드북’ 제작 (도쿄도 스미다區)

○ 도쿄도 스미다區는 2005년 11월에 ‘협치’(協治, Governance)를 기본이념으로 해 구정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협치 가이드북’을 제작함.

- 스미다區는, 구민·지역단체·NPO·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협치라고 정의함.
 - 공공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주민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연대는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가이드북에 따르면, 협치에 필요한 3가지 힘은 아는 힘, 연대하는 힘, 행동하는 힘임.
 - 마을 만들기는 무엇이 지역의 과제인가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살아있는 정보를 아는 힘과 알리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함.
 - 마을 만들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각의 장점을 찾아 동료 만들기 등 연대하는 힘이 필요함.
 - 지역의 과제와 동료를 찾았다면 가능한 것부터 행동하는 힘이 필요함.
- 스미다區가 협치를 내걸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역할 한계 외에도 기존에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던 자치회나 상점가의 구성원이 고령화돼 차세대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나 NPO 등이 독자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

(www.city.sumida.lg.jp/kakuka/tiikisinkoubu/kuminkatsudou/info/governance/index.html)

6. 정보타워에서 방문객이 공사 진행상황 관찰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 공항’의 공사 진행상황을 방문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타워(Info-Tower)를 설치함.

- 방문객은 정보타워에서 축구장 약 2000개를 모아놓은 규모의 공항 건설현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됨.
 - 상설 전시장에서 공항건설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전시장과 정보타워 사이를 상시 운행하는 버스가 마련돼 있음.
 - 전시장과 정보타워의 입장료는 10유로(약 1만 3700원)며, 전화로 예약해야 함.



건설 현장을 볼 수 있는 정보타워

(www.tagesspiegel.de/berlin/Berliner-Flughafen-Flughafen-BBI-Schoenefeld;art1050,2419901)

디지털 도시

7. 클릭 한 번이면 약국 정보가 ‘우르르’ (도쿄)

○ 도쿄都是 약국 정보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인 ‘t-약국 인포메이션’을 개시함.

-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거나 휴일이나 한밤중에 운영하는 약국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노약자·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개호 상담, 약 복용 상담, 육아 상담, 생활습관병 상담 등 약국에서 상담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검색할 수 있음.
 - 약국에서 취급하는 위생 재료나 의료기기 설비, 서비스 내용 등도 검색할 수 있음.
- 언어별, 시·청각 장애인용, 휠체어 이용자용으로 나눠 서비스하며, 도내 약국에서 받은 내용을 기초로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해 제공함.



소재지, 영업 시간, 상담 내용, 기타 서비스에 따라 검색 가능

(www.koho.metro.tokyo.jp/koho/2007/12/yakyoku.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 약국정보 제공 시스템(www.t-yakkyokuinfo.jp)은 소재지, 요일·시간, 상담내용, 보험, 설비 등 다양한 검색 분류를 활용해 시민이 자신에게 적절한 약국을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상담내용을 장애인·육아·생활습관병 등으로, 업무내용을 일반의약품·임상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으로 나누고 각 약국의 전문 영역을 구분했음.
 - 수화·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약국이나 주차장 유무 검색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대한약사회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국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 지역,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약국을 검색할 수 있음. 휴일·명절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검색도 가능함.
 - 국내 거의 모든 보건기관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케어 센터와 같이 처방전 및 질병에 따른 상세 복약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다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 시내 보건기관 사이트 안내를 서울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에서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지만, 도쿄都의 사례와 같은 근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음.
 -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의료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한줄 뉴스

- 요코하마市, 역사 건축물 및 각종 도시시설을 대상으로 조명을 이용해 야경을 연출하는 ‘라이트 업’ 사업 실시
- 파리市, 안전한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해 자전거 교실 운영

8.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야외 공공장소 확대 (파리)

○ 파리는 2008년 1월 20일까지는 프랑소와 미테랑 국립도서관 부근 광장에서, 3월 9일까지는 시청 앞 광장과 몽파르나스 역 광장에서 시민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함.

- 야외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가 매년 준비한 겨울 스포츠 행사 중의 하나임.

·파이르롱 지역과 벅시 지역은 1년 내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개방함. 특히 벅시 지역의 야외 스케이트장에서는 금·토요일 저녁에 DJ와 함께 춤과 음악을 즐길 수 있음.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15008&portlet_id=815)

9.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학’ 팸플릿을 보세요 (베를린)

○ 베를린시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신질환이 급증해 많은 사람이 전문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음. 이번에 새로 제작한 ‘베를린 정신의학: 정보와 지향’ 팸플릿은 정신질환에 도움을 주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은 “베를린시는 최근 10년 동안 구청별로 정신질환 보호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요양체계를 만들어 모든 구청에서 동일한 체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팸플릿을 통해 적합한 치료방법과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발간취지를 밝힘.

- 팸플릿은 발행 목적과 정신질환 개념 소개, 구청별로 갖춘 설비와 서비스 내용, 치료 및 조언, 요양과 응급치료 등으로 구성됨.

(www.berlin.de/imperia/md/content/lb-psychiatrie/veroeffentlichungen/psychberlin_07.pdf)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1/16/89048/index.html)

10. ‘인권도시’ 선언 (도쿄)

- 일본에서는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채택을 기념해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고, 매년 12월 4~10일 ‘인권 주간’ 행사를 열. 도쿄都도 이러한 국가시책에 발맞춰 ‘도쿄都 인권 시책 추진 지침’에 따라 종합적인 인권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부터는 직장에서 차별받는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거나 집단 따돌림받는 어린이, 괴롭힘당하는 노인, 취업에서 차별받거나 입주를 거부당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정책을 적극 마련함.

- 외국인, 에이즈·문둥병 환자, 범죄 피해자, 전과자, 노숙자, 동성애자 인권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사생활 침해 즉, 인터넷 등에 의한 비방이나 개인 정보 누설에 대해서도 관공서와 협력해 대처하고 있음.

- 2007년 인권 주간에는 버스 래핑(광고 시트지 부착) 광고, 강연, 영화 상영, 토크 콘서트, TV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인권을 주제로 래핑(광고 시트지 부착)한 버스

(www.koho.metro.tokyo.jp/koho/2007/12/jinken.htm)

11. 집 없는 이주 노동자 임시숙소 보수비용 지원 (파리)

○ 2005년 4월 파리 9구에 위치한 오펔 오페라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파리가 새롭게 ‘오펔 피블레’에 대한 임시숙소 정책을 내놓음.

- 오펔 피블레는 본래 ‘가구 딸린 여관’이란 뜻으로, 장기체류 중인 타 지역 사람이나 이주노동자 등이 오펔 피블레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음.
 -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기거하는 등 거주환경이 열악함.
 - 특히 화재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2005년에 24명이 사망한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 파리는 일종의 ‘지원위원회’(Un Observatoire)를 설치해 889개의 오펔 피블레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오펔 피블레 환경개선 운영 프로그램’(OPAHM: L’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des Hôtels Meublés)도 만들어, 이주 노동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오펔 피블레 주인이 숙소를 보수하면 공사비의 50%까지 시가 지원하기로 함.

(www.paris.fr/portail/Urbanisme/Portal.lut?page_id=101&document_type_id=2&document_id=35438&portlet_id=820)

한줄 뉴스

<도쿄>

- 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태양열 발전시설을 확충하는 ‘솔라 시티 프로젝트’ 추진
- 교통이 편하고 호텔이 모여 있으며 하네다 공항이 가까운 시나가와 지역을 국제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나가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도 시 환 경

12. 2008년부터 유해물질 배출차량은 ‘환경구역’ 출입 금지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구역’(Umweltzone) 홍보를 위해 2007년 6월에 홍보지 8만 부를 배포한 데 이어 최근 업데이트된 홍보물 3만 부를 새롭게 제작했음.

- 2007년 여름부터 환경구역에 대한 전시회를 많은 구청에서 열었으며 앞으로 홍보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음.

·2007년 11월 17일부터 베를린市의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 베를린 순환선 내 도로가 환경구역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됨.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표시한 차량이나 예외로 승인받은 차량 외에는 환경구역 통행이 전면 금지됨. 이는 현 주민 차량이나 방문 차량 모두 해당함.

(www.berlin.de/umweltzon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1/16/89054/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적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 도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책이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방안으로 우선 고려되고 있음.

·베를린市가 시행하는 환경구역 지정을 통한 차량운행 규제는 좀더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임.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행속도 및 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한 대(對)시민 홍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임.

- 서울에서도 자동차 운행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향후 베를린市처럼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선진도시의 각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 사전 연구방법, 홍보전략, 정책 시행 후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유진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yjchoi@sdi.re.kr)

한줄 뉴스

<영국>

- 소외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 '뉴딜 커뮤니티'(New Deal for Community)의 일환으로 전력 소비실태 모니터링 실시
- 개발업자가 도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격 상승을 위해 토지를 3년 이상 묶어두는 병폐를 막는 도시계획법 제정 검토

13. 야간 소음과의 전쟁 개시...‘조용한 도시’ 정책 시행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야간업소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용한 도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상파울루市는 소음공해 퇴치방안으로 2005년 1월~2007년 11월 야간업소 5786개를 적발함.

·이 중 1065개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했고, 189개 업소는 폐업 조치함.

- 같은 기간에 야간업소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항의전화가 약 9만 2000건에 이룸. 이에 市는 1994년에 제정된 소음 관련 조례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시청에서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전용 주차장과 치안 경비원, 방음장치를 갖춰야 함.

·오전 7시~저녁 10시에는 65db(진공청소기 정도의 소음) 이상의 소음을 내서는 안 됨.

·규정시간 외에는 55db(세탁기나 트럭의 모터 소리 수준)을 넘으면 안 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71130/not_imp88185,0.php)

14. 주말은 도시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런던)

- 런던시는 도시농장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출간함.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겨냥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으며, 15개의 농장별 체험 프로그램과 방문 가능 시간 등 실용적인 정보를 주로 담았음.
 - 런던시와 중앙정부의 런던 대표부(Government Office for London)가 공동 제작했으며, 런던개발청과 도심농장·지역사회 정원가꾸기 협회(Federation of City Farms and Community Gardens)가 지원함.
 - 런던시에 있는 도시농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농장을 방문해 직접 동물을 돌보고 기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무료입장이라 외부 기부금·기금 등으로 운영됨.
 - 도시농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녹지에 있으므로, 런던 면적의 2/3에 달하는 녹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714)

15. 약 3800억 원 들여 동부지역 생태망 구축 (런던)

- 런던시는 템스강 하구역 재개발 지역의 교통망·핵심 상권·생태보전 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을 연계하는 ‘런던 동부지역 생태망(The East London Green Grid) 구축 계획 보고서’를 최근 발간함.
 - 생태망 구축을 통해,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도 동부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런던시는 대상 지역을 6개의 생태 격자로 나누고, 격자별로 개별 생태망 계획을 세우도록 했음.
 - 향후 5년 동안 300여 개 세부사업에 2억 파운드(약 3800억 원)를 투자함.

·특히 런던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기존 도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임.

- 이 사업은 2006년 5월 동부지역 상세 개발전략(East London Sub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에 포함된 후 2006년 9월 런던시 도시계획인 런던플랜 수정 과정에 반영되는 등 도시계획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안됐음.

·생태망 구축사업에는 런던시, 런던개발청, 동부지역 자치구청, 템스게이트 런던 파트너십, 영국 환경청이 공동 참여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692)

16. 도시가 CO₂ 75% 배출...‘C40 회의’에서 기후변화 방지방안 모색 (런던)

○ 런던시장은 2007년 12월 초 세계 33개국의 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C40 기후리더십 정상회의’를 열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혼잡 통행료 정책을 논의함.

- 이번 C40 회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회원 도시들이 공유하기 위해 열림.

- 이번 회의에는 독일 상원의원과 중국 사절단이 참석했으며, 클린턴 기후대책 위원회(Clinton Climate Initiative)도 합류했음.

·클린턴 기후대책위원회는 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신호 등, 바이오 에탄올 버스 등을 소개함.

- 런던시장은, 도시가 7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 여러 도시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함.

- C40 회의는 2008년에 로스앤젤레스, 2009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753)

17. 지구온난화에 태양열 에너지로 맞서 (파리)

○ 파리는 파졸 지역개발 계획 중의 하나로 ‘파졸홀’에 3300㎡의 태양열 집적판 지붕을 설치할 예정이다. 1926년에 지은 이 홀은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에 완공됨.

-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태양열 에너지는 도서관, 정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등에 공급됨.

- 파졸 지역개발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파리의 야심찬 계획임.

- 특히 클리시 바티뇰(Clichy Batinolles) 지구는 환경계획 지구의 모범사례로, 이산화탄소 억제를 위해 태양열과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한 생태에너지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방식을 활용함.

·이 지구는 빗물 집수장치 등을 통한 물 관리, 자전거 이용 장려, 공공교통 정책 개선, 쓰레기 처리, 녹지공간 조성 등 다방면으로 도시환경 보호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진행 중임.

(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cdocument?multimediacdocument-id=32616)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차장의 손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강제하고 보험 혜택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

- 산토 안드레시, 성병·에이즈 환자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특별 의료서비스 제공

<베를린>

- 중·고등학교 발행 학교신문을 대상으로 ‘2007 최고의 학교신문’을 공모해 총 4000유로(약 52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

- 2007년 11월 13~14일 ‘폭력 없는 곳의 청소년’이란 주제로 오픈 스페이스 행사 개최

18.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만든다 (영국 사우스웨일스)

○ 영국 사우스웨일스(South Wale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임.

-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되면 웨일스 지역이 정한 2010년까지의 재활용에너지 사용목표의 70%를 달성하게 됨.

·발전소에서 생산될 350메가와트 전기는 웨일스 전체 주택의 절반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며,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됨.

·이 발전소는 나무쓰레기를 이용해 전력을 만들며, 건립비용으로 약 4억 3000만 파운드(약 8000억 원)가 듬.

- 발전소 건립 위치가 주거지에서 2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매일 2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과 공해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 의견도 나오고 있음.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68806/Biomass-plan-wins-support)

도 시 교 통

19.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차로 수를 더 늘려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과거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피코(Pico) 대로와 올림픽(Olympic) 대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는 제안을 했다가 주변 상가와 주민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음. 이번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함.

- 올림픽 대로와 피코 대로는 블록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동·서를 잇는 대로임.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길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교통신호등의 시간을 다르게 설정함.

- 올림픽 대로의 서쪽 방향 차로와 피코 대로의 동쪽 방향 차로의 초록색 불을 좀더 오래 켜놓음으로써 운전자를 유도할 계획임.
- 최종 단계에서 올림픽 대로의 서쪽 방향 차로와 피코 대로의 동쪽 방향 차로를 4차로로 늘리고, 각 대로의 반대방향은 2차로로 줄일 계획임.

- 이러한 도로체계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市는 이번이 처음임.

-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로체계가 정착될 경우 통행시간이 최대 45%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la-me-westside26nov26,1,7703763.story?coll=la-commun-los_angeles_metro)

도시계획·건설·주택

20. 지역사회 활성화방안을 市 도시계획에 반영 (런던)

○ 런던시장은 ‘런던市 도시계획’에 대한 2008년 정기 수정·보완 시 지역사회 활성화방안을 반영할 계획임.

- 영세 사업자 및 소매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경관 조성 등 다양한 공공성을 가진 주택 정원의 용도변경 금지, 저층 주택을 허물고 들어서는 몰개성적인 주택단지 조성 억제 등이 포함됨.

·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면 인상된 점포 임대료를 내지 못해 기존의 지역상권이 떠밀려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상가 개발자는 일정 수의 점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과 지역사회 육성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559)

방재 · 안전

21.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 어린이를 키운 경험이 적은 젊은 부모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위생국은 어린이 안전에 관심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사고에 관한 전시회를 15일 동안 옴.
 - 전시회에서는 갓난아기 및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추락사고, 화상, 질식사, 익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요령을 제공함.
 - 사고가 어린이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함. 매년 약 21만 명의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사고를 당함.
 - 그 중 약 50%는 6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일어나고, 그 중 절반 정도인 9만 8000건이 이층침대·정원 벤치·층계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임.
 - 5세 이하 어린이 약 7000명은 끓는 물에 데는 등의 화상사고로 치료를 받음.

(www.stuttgart.de/sde/menu/frame/ns_top_11021.htm)

22. 우범지대를 표시한 ‘지역 안전 지도’ 제작 (도쿄)

- 도쿄都는 2003년부터 시행된 ‘도쿄都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이 협력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는 어린이 안전 확보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안전 지도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표시한 것임. 지역 안전 지도를 참조해 안전한 길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등 평소보다 더

주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 都는 2006년부터 지역 안전 지도 제작 지도원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 지도 만들기 연수회를 개최했음.
- 2007년 하반기부터는 아이들의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역 안전 지도 만들기를 실시할 목표로, 지도 제작을 도와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음.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 답사



지도원의 도움으로 지역 안전 지도 제작

(www.bouhan.metro.tokyo.jp/tokyo/topics_003.html)